

거대야당 출현... 中企,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선택법 '복잡'

(중대재해처벌법)

중기중앙회 등 9곳, 소상공인 등 "50인 미만과 이상 사업장에 중처법 일괄적용, 평등권 침해" 현재에 법률 헌법소원심판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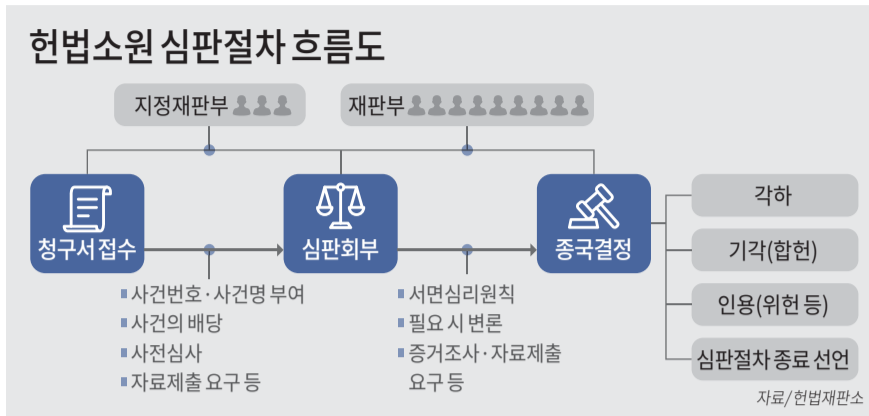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22대 총선에서 거대 야당이 출현하면서 험로를 만나고 있다.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와 정부, 여권이 모처럼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대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다소 미온적인 모습이다.

1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305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명확화 ▲평등원칙에 기초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차등 적용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에 대해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

다"면서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청구를 하면서 중처법 제3조는 본질적으로 다른 '5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 적용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4조는 명확성 원칙, 의회유보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직업수행의 자유)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6조1항이 책임과 형

벌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는 30일 이내에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수원, 광주,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총선 이후 열기로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서울 집회 개최 여부 놓고 고심중인 모습이다.

한편 경총은 앞서 경제단체 최초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 종합 대응센터'를 지난달 말 공식 발족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등 법률상담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 교육, 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코웨이 안마+리클라이닝 기능 비렉스 안마·척추베드

코웨이가 강력한 안마에 리클라이닝 기능을 탑재해 한 단계 더 진화한 침상형 안마기기 '코웨이 비렉스(BEREX) 리클라이닝 안마베드·척추베드'(사진)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14일 코웨이에 따르면 비렉스 리클라이닝 안마베드·척추베드는 일반 침상형 안마기기 가운데 국내 최초로 상체 리클라이닝 기능을 탑재해 편의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작년 11월 'CES 2024' 디지털 헬스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며 차별화된 안마기기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비렉스 리클라이닝 안마베드·척추베드는 높여주고 일으켜주는 자동 리클라이닝 기능이 새롭게 탑재돼 시작부터 끝까지 편안한 안마 경험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창업기업 성장 촉진... 특화역량 BI 43곳 선정

산학협력·산업특화·지역거점 유형 잠재 창업 DNA 발굴 프로그램 운영 선정 특화역량 BI에 1.5억~3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보육센터(BI)가 보유한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초기 창업기업 1000개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화역량 BI 43곳을 선정했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특화역량 BI는 3가지 유형(산학협력·산업특화·지역거점)으로 구분해 지원 기관별 강점에 따라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 설계하는 것이다. 전국 257개 BI 중 경쟁력 있는 운영기관을 추렸다.



그간 보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BI의 창업기업 보육 기능을 강화해 온 정부는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지난 12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편했다.

선정된 곳은 산학협력 14곳, 산업특

화 6곳, 지역거점 5개 권역 23곳이다.

산학협력형 BI는 대학 내 창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창업기업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산학연결 멘토링, 과제 기획을 강화한다. 또한 교수·학생을 대상으로 잠재된 창업 DNA를 발굴하고 창업실행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업특화형 BI는 지역주력산업 지원기관과 협력해 전문화 및 특성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문제해결을 돕는다. 대학·연구소의 전문인력과 창업기업 간 전담 코칭 및 특화산업 기관·기업간 협업을 통해 실증·투자유치·판로 개척 등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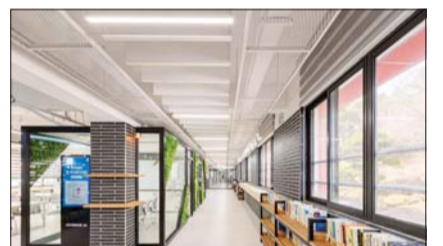
지역거점형 BI는 지역BI 간 협업을 통한 공동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 지역거점 인프라를 통해 스케일업이 가능한 지역주력산업 또는 특화분야 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고 단계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특화역량 BI는 1억5000만원~3억원을 지원 받아 창업기업 제품의 시장출시 전 애로과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특화역량 보유BI를 통해 창업보육 육성체계를 문제해결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창업생태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축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마산제일고등학교 도서관에 시공된 KCC의 '마이톤 스카이' 천장재.

KCC 흡음 '마이톤 스카이' 도서관 등 영역 확장

KCC가 선보인 흡음 기능성 감성 천장재 '마이톤 스카이(Mitone Sky)'가 도서관, 카페 등에 시공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14일 KCC에 따르면 최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마산제일고등학교 도서관에 KCC의 '마이톤 스카이'를 시공했다. 경남 교육청의 공간혁신사업 일환으로 도서관에 차별화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이톤 스카이가 선택을 받으면서다. 마이톤 스카이는 시공 방법에 따라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은 와이어형, 층고가 낮은 천장에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파일형, 그리고 천장에 포인트 디자인을 줄 수 있는 세로형까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마산제일고 도서관에는 와이어, 와이어 세로형, 프로파일형이 조화롭게 시공됐다.

도서관에 마이톤 스카이가 설치된 가장 큰 이유는 흡음 성능이다. 정숙성이 요구되는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뛰어난 흡음 성능을 갖춘 마이톤 스카이를 설치해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확산을 줄여 조용한 실내 공간이 조성되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 4년연속 최대 매출... 2030년 '3조 클럽' 순항

작년 매출 1조6600억, 영업이익 1100억 "난방·냉방 사업 동반성장 주요"

보일러회사에서 종합냉난방에너지 그룹으로 탈바꿈한 귀뚜라미그룹이 '2030년 매출 3조원'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14일 귀뚜라미그룹에 따르면 귀뚜라미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적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6600억원, 영업이익 1100억원을 각각 거뒀다.

귀뚜라미홀딩스만 놓고 보면 매출 1조2372억원, 영업이익 402억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으로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직전년도와 비교해 매출은 3%, 영업

이익은 14% 각각 성장한 수치다.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과 2021년 당시 각각 9352억원, 9733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뒤 이듬해 매출 1조원 벽을 넘어서는 등 4년째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귀뚜라미홀딩스는 2019년 11월 당시 '귀뚜라미'에서 간판을 바꿔달았다.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 내 주력 냉난방 공조 에너지 계열사인 ▲귀뚜라미 ▲귀뚜라미냉방 ▲신성 엔지니어링 ▲센추리 ▲귀뚜라미에너지 등 19개 종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19개 계열사 가운데 귀뚜라미에너지, 귀뚜라미냉방, 신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해외 법인인 귀뚜라미센

추리(천진)실업유한공사, 귀뚜라미USA, 귀뚜라미범양냉방 베트남 등은 지주사가 모두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귀뚜라미홀딩스 관계자는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침체속에서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간 것은 그룹내 난방·냉방 사업이 함께 성장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성숙 사업으로 평가받던 가정용보일러는 프리미엄 친환경보일러 판매 비중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확대됐고, 업계 최초의 재난안전제품 인증 획득과 브랜드 파워 26년 1위라는 압도적 브랜드 인지도와 로열티가 매출 성장에 이바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냉방 사업을 담당하는 주력 계열사 3사 가운데 귀뚜라미범양냉방은 반도체, 바이오, 데이터센터용 냉동공조 장비가 매출을 견인했으며, 대규모 해외 건설이 진행 중인 화공플랜트, 발전플랜트, 전기차 배터리 공장 등에 냉방 제품 수출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신성엔지니어링은 반도체 등 산업시설의 냉난방공조(HVAC) 시스템과 2차 전지 생산 공정의 초저습도를 구현하는 드라이룸 및 클린룸 시스템 공급을 중심으로 견고한 매출 실적을 올렸다.

센추리는 원자력 발전소와 조선 산업에 특화된 냉동공조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난해 국내 원전 개보수 현장과 해외 원전 수출이 늘어난 동시에 저온 창고 영업 안정화로 매출 신장을 이뤘다.

/김승호 기자